"누가복음 5장 1절~11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5장 1절~11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408장(새찬송가 302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래쪽에 있는 큰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은 호수의 북서쪽 연변에 자리 잡고 있는 평야의 이름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최초의 이름은 긴네렛 혹은 긴네롯이었습니다. 긴네렛은 '비파'라는 뜻으로 그 모양이 비파와 같이 생긴 까닭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바벨론 포로시대 이후에 그 이름이 와전되어 게네사렛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로 불리어졌으며 갈릴리는 호수의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옛 이름입니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게네사렛 호수 서편에 로마의 디베랴 황제를 위해 건설한 도시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호수의 길이가 약 21킬로미터이고, 폭은 최대치가 약 13킬로미터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로 인하여 바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내륙에 있는 하나의 커다란 민물 호수입니다.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게네사렛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 가공한 후 멀리 로마나 스페인에까지 수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으며 다섯 명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동업자들과 여느 때처럼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던진 그물을 끌어 올려보면 빈 그물 그대로였습니다. 어느새 날이 훤하게 밝아지는데 여전히 빈 배였습니다. 베드로와 동업자들은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상태로 배를 해변 가에 대었습니다. 별 도리 없이 빈손으로 가야 하지만 혹시 누가 볼까 하여 서둘러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일단의 사람들이 해변 가로 다가왔습니다. 앞서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를 향하여 오시더니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뭍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지만 당장은 예수께서 설교하기에 적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는 사람들이 어찌하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하려고 턱 밑까지 밀고 들어오니 가르치시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다 편에서 해변에 모인 청중을 향하여 설교하면 음성전달이 용이하였습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8월 17일 저녁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부흥성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신현균 목사님과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신현균 목사님은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하신 저명한 부흥사입니다. 1954년 목사임직을 받은 후 2006년 소천하시기까지 52년간 국내외교회 부흥운동을 이끄셨습니다. 부흥성회를 기획하신 분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해변에 운집한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장면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시고 착상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바다에 바지선을 띄웠습니다. 바지선(barge船)이란 운하, 강 등에서 사람과 화물을 싣고 다니는 바닥이 납작한 배입니다. 그 곳에 설치된 설교단에서 설교자가 외치면 청중은 해변에서 설교를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은 배가 와서 예배순서 담당자들을 태워서 바지선으로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그날 날씨가 흐렸는데 저녁 7시가 지나니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점점 세게 불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바람이 더 세게 불면 파도가 거세어져서 자칫 바지선을 매어 놓은 줄이 끊어져 바지선이 태평양으로 떠내려 갈 터인데."라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심으로 다들 걱정하고 있는 판국에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지선으로 데려갈 배도 파도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고려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청중들이 모여들었고 부흥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높아진 파도로 인하여 바지선이 요동하고 거센 바닷바람으로 인해 강대상이 쓰러지려고 해서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날 성회에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지선이 거센 파도를 잘 견디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부흥회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곧장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의외의 말씀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뿐 아니라 해변 가의 무리들이 한결같이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목수 출신의 예수께서 이름난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라고 지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①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은 노련한 어부들인데도 밤새껏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②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아침 햇빛이 호수를 뒤덮은 아침입니다. ③ 호수의 수심은 50에서 60미터가 됩니다. 얕은 곳에서 저인망으로 끌고 다니면 몇 마리 잡힐지 몰라도 물고기가 배의 그림자만 어른거려도 아주 깊이 잠수해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은 저인망 용도가 아닙니다. ④ 밤새도록 헛수고하느라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만사가 다 귀찮은 지경입니다. ⑤ 어구를 다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⑥ 군중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중들이 이번에는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에 그들의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군중들이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물이 깊은 안쪽으로 배를 저어간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당기니 찢어질 것 같아서 중단하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물을 끌어올려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저것 좀 봐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사를 발했습니다.

이제부터 지난 주일에 다 다루지 못한 교훈들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당면하는 곤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격언은 성경적입니다.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모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하여 갈수록 누적되는 체험 중의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이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빈 배와 빈 그물인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였으니 그 심정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빈 배처럼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손에는 힘이 빠져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 예수님이 그에게로 오셨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의 배에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앉을 자리도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곤란에 직면하거든 당면한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파산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적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고통이 심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가까이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선생님, 저는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빈 손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의 마음이 몹시 착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모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돈을 융통하기 위해 돌아다녀야 할 판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그날 그에게 다가온 행운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곤경에 처하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비워 놓았습니다.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믿음이 생기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군중들을 의식하여 곤혹스러웠습니다. 그가 고기잡이에 실패한 것을 보고 화젯거리를 삼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니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해변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려고 서로 밀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해변 가의 무리를 향하여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빈 배에 모셨으니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서 작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작용하여 움이 트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자라나서 그 씨앗에 내재된 유전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마음 밭에 심어 놓으면 여러 가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기적과 변화와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하였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의 씨앗은 습기에 접촉만 해도 곧 싹이 틉니다. 손바닥에 물을 조금 적시고 그 씨앗을 올려놓으면 즉시 씨앗의 껍질이 열리면서 싹이 틉니다. 어떤 씨앗은 여러 해 만에 싹이 틉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어떤 나무는 씨를 심고 여러 해 동안 영양분을 주며 인내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싹이 트면 불과 몇 개월 만에 큰 나무가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고, 여러 번 경청하고 상고하는 열심과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눅 1:37)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믿음을 공급하는 보고(寶庫)입니다. 성경을 언제라도 읽고 들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갈릴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말씀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이곳에 지금 주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에게 신령한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따르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셋째, 믿음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용단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상식과 합리를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현실상황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감했습니다. 실천에 옮기기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현명한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기 이론을 모두 깨트려야 합니다. "나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삼고 있다. 밤새도록 노력해 보았다. 이 시각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베드로는 이런 이론을 주님의 말씀아래 복종시켰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고후 10:5)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빈 그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망신스러운 꼴이 될 것이다. 온 동리에 화젯거리가 되고 광신자 소리도 듣게 될 것이다. 갈릴리에서는 고개 들고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베드로는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넷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에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명령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것과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배 따위는 집어치워라. 그물도 던져 내버리라. 그런 수단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뛰쳐나오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노를 저어서 배를 깊은 데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그물을 물속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이 이런 저런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핵심은 '깊은 데로 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깊은 데'란 게네사렛 호수의 어느 한 지점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께서 지시한 그곳이 '깊은 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명령하신 말씀이 곧 '깊은 데'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거기에 '깊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곳은 어디나 얕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되는 곳은 어디나 얕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사상과 종교와 지식이 사람 보기에는 심오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얕은 곳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삶의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의 참된 의미와 영원한 가치와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깊은 곳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극히 얕은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심오한 것인 줄로 알고 있으며, 쉽고 명료한 복음을 도리어 괴상하고 유치한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배에 채우니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매일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여 신령한 복을 풍성히 수확하는 기쁨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대낮에, 깊은 곳에서, 단 한 번 그물을 던져 이토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하였습니다. 고기잡이에 문외한이라면 몰라도 어부인 그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이제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상대적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성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온통 죄로 오염된 자신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부족을 느끼는 정도는 그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접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골짜기에서뿐 아니라 성공의 산정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빈 배는 이제 물고기로 만선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제거되고 엄청난 성공을 획득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취득하고 소유한 것이 늘어나므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요 화근이 됩니다.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알게 하는 것이 되며,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때 더 겸손하게 되고, 자신이 얻은 강함과 부와 성공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을 알게 되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획득한 성도가 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배들과 물고기들을 방치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 처리를 누가 맡아서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제일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추구하되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수단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버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선택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가 비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에게 바싹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하면 이전에 미처 듣지 못한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며,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에 없던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이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계획하고 담대히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상충되거든 여러분의 이론을 파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어라고 비난하든 신경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도구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노를 젓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그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합당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곳이 '깊은 데'입니다.

빈 배로 인하여 주님을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이야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만선이 된 이야기, 소원 성취와 풍부하게 되므로 더욱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알게 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